

지역 소식통

부안군, 어업인들 경제적 부담 경감 보험료 지급

부안군은 관내 어가 1,012세대와 어선 650척을 대상으로 총 3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분야 보험료 지급은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과 위기극복 등을 위해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어선과 어선원, 어선 조업 외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급대상이다.

군은 보험료 지급을 위해 그동안 수협중앙회로부터 수산분야 정책보험 가입 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고창군이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유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임대료 감면 연장이 최종 결정되었다.

임대료 감면은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4개 임대사업소의 모든 농기계에 적용되며 회원이라면 고창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동서남북 4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북도 내에서는 최초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코센, 600억원 규모 투자 '확정'

정읍 제3산업단지에 5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 지방세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기업인 (주)코센(대표 김광수)이 정읍 제3 산업단지에 공장 확장을 위한 증설 투자를 확정했다.

정읍시와 (주)코센은 26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김광수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코센 정읍공장 신축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들 위해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주)코센은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강관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석유화학 생산시설 건립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납품처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 3월 철강 제품 생산기업인 (주)코스탈이 인수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읍 제3 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했다. (주)코센은 투자 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 등 어려운 시기에 정읍시에 투자를 결정해준 (주)코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광수 대표는 "우리 기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주)코센은 이날 (주)코센-정읍시 간 입주 투자협약(MOU)을 기념하며, 정읍시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지역에 지난 21일~24일 4일간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공무원과 군부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제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너도 나도 제설작업 동참

정읍시, 8098부대 3세대 · 지역 자율방재단 등 제설작업 팔 걷어

정읍지역에 지난 21일~24일 4일간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공무원과 군부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제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정읍시청 전 직원들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폭설 속 출퇴근길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른 새벽부터 제설작업을 벌이는 등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군부대와 민간단체에서도 제설작업에 힘을 보탰다.

105여단 및 8098부대 3세대 250여 명의 장병은 지난 주말 정읍 총정리산 대리목-대림아파트 양방향), 중앙로(역전-호젓사거리 양방향), 천변로(연지교사거리-초산교 양방향) 등의 인도 제설에 구슬땀을 흘렸다.

장병들은 5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부대 내 제설보다 먼저 정읍 시가지 제설에 참여하며, 전투를 방불케 하는 제설 작업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의 사무

실과 당 직원 50여 명도 제설작업에 힘을 보탰다. 직원들은 시민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제설 모래를 살포하고, 제설 버가래를 이용해 이면도로와 골목길 눈 치우기 활동을 벌였다.

정읍시 지역 자율방재단과 정읍시 해병대전우회, 정읍시 해양구조협회 등 민간단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가지 제설작업에 참여하며 제설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차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쌓여 차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트랙터와 제설기 등의 장비도 동원해 도로 위 눈을 치웠다.

이학수 시장은 "명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나서준 군부대와 민간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골목까지 제설작업 꼼꼼히 마무리해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 행정 공백 최소화

이학수 시장이 지난주 정읍지역에 닥친 한파와 폭설에 대해 철저한 마무리 작업과 취약 시설물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영산간부회의에서 "기습적인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비상근무에 나서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와 골목까지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적설 취약 구조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히 피해를 조사할 것 또한 요청했다.



이 시장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할 점 등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의를 위해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 현안 사업에 대한 내실 있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행정 공백 최소화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공직자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복무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관광업계,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성공 맞손

고창군과 지역 관광업계가 '내년 세계유산도시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역 7개 기관(서울시니어스타워(주)웰파크시티, 상하농원(유), 고창컨트리클럽, 골프존카운티선운, 석정힐CC,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 등 효율적인 협조체



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기관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

연계 관광상품 판매증진 노력 등이다.

이날 MOU체결과 더불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산·관이 구성되어 방문의 해 추진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해 방문의 해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도 관광기류를 의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라북도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적인 세계문화도시로 브랜드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기관

정읍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2년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됨에 따라 시는 인센티브로 2024년 사업비를 증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집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용률과 예산집행률, 현장점검, 부정수급 예방과 제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정읍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청년 마을 건강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